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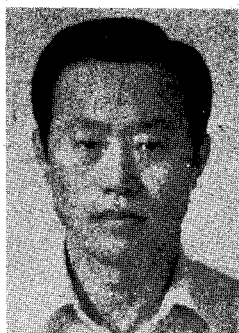
飼料價格상한선에 따른

사료의 品質問題

사료 가격 상한선 제한에 따른 사료의 품질문제란 제목으로 글을 써 달라는 편집자의 청탁을 받고서 선뜻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무척 망설였다.

나 자신이 경제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다가 가격 문제라고 하면 어느 분야이든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료처럼 복잡한 배경과 입장을 달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니기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료업계 일선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평소에 품었던 의문점도 있고 해서 충분한 검토나 정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서로가 토론의 기회로 생각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는 선에서 몇 자 적기로 한다.

사료공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
는 기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들어갈 소
지가 되며,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둔
화되고 연구개발 및 장비의 개발이 억
제되어 가족의 영양 개발이 크게 뒤쳐질 수
있고 사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데 이 엄청난 손실이 직접 명확히 볼 수
없다고 무시하는 것처럼 더는 과잉이 없
다.



이 현 범
(주) 퓨리나 코리아
품질관리부장

사료의 품질이 화제로 등장할 때마다 사료 제조업자에게 가해지는 눈 초리가 싸늘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 가격 상한선 때문에 사료의 품질이 향상되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향간의 견해가 흐르고 있는데 품질문제가 사료 가격 상한선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기도 하지만 지나쳐 버리기 쉬운 또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년에 우리 사료업계가 품질 유지 문제와 관련하여 겪어온 몇 가지 일, 즉 사료의 기본 원료가 되는 원료의 수급 불균

형,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구에서 창고 시설의 미비로 일어나고 있는 도입원료의 변질 문제, 사료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료 배합표 작성시에 요구되는 수 많은 제약 조건에 의한 기술상의 경직성, 그리고 이상의 사항들에 의하여 초래되는 원가 상승 요인등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품질을 논함에 있어서 사료의 경제적인 생산성을 도외시 하고 단순히 고정된 사료효율 개념에만 근거를 두고 사료효율이 낮으면 무조건 품질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한번쯤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료의 품질이 가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현행 상한선으로 정해진 사료가격을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료가격 산정을 위하여 고려할 요인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1. 생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와 수량.
2. 원료의 가격과 구입 가능량.
3. 사료의 영양을 및 목표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량.
4. 고객이 축산물 시가와 비교하여 사료비에 지불하고자 하는 사료단가.
5. 고객이 원하는 사양계획.
6. 사료업체의 판매 경쟁.
7. 사료 관리법이 요구하는 사항.
8. 기타 제조 원가에 부가되는 제 비용.

사료품질의 유지와 사료가격의 안정화는 안정된 원료 공급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가격이

이상에 열거한 요인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충실히 반영시킨 것일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가격 상한선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다.

혹자는 현행 사료가격의 상한선이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원료조건을 기준하여 당국이 바라는 목표가격에 일치시켰다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과거에 흔히 원료의 물량공급 사정은 감안하지도 않고 품질만을 논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는 본말의 전도도 이만 저만이 아닌 년센스라 아니 할 수 없다.

근년에 문제로 삼고 있는 품질문제란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원료의 공급을 시기 적절히 추진하지 못한 일종의 원료 파동이란 문제로 귀결지을 수는 없을까?

사료의 지정가격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에 주어진 가격조건 하에서도 도입원료의 문호를 보다 개방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원료의 경제성을 밝혀 원료의 종류를 선별 도입한다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사료의 가격과 품질의 결정은 사료 생산자와 양축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사료의 가격과 품질의 결정은 소비자인 양축가와 생산자인 사료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 쫓아가게 되고 양축가는 자기의 자금여건, 가축의 생산성 또는 가축 증식여건, 축산물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양 결과로 입증되는 경제성 있는, 가능한 한 효율 좋은 사료를 선택하려 하는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과 질을 타협하고 동의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상한선으로 모든 사료가 시장의 요구하는 특징을 살리지도 못하고 품질의 향상이나 개발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어 갈 것이 아니고 양축가가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줌으로써 고객이 제조업자에게 강력하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경쟁 체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혹자는 가격을 자유화하면 가격이 폭등하리라고만 우려하는데 폭락할수 있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가격 자유화가 이유가 아니라 원료 및 제품의 수요 공급의 예측을 벗어난 시장여건의 변동이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방법이자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료를 경제적인 생산성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는 말은 즉 1kg의 축산물을 얻는데 투입되는 사료비가 적은 사료를 말한다. 다음의 육계사료의 예를 가지고 몇가지 경제성 판단의 예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A 사료	B 사료	C 사료
사료 효율	2.0	2.4	2.8
사료단가(원/kg)	135	110	90
에너지(Kcal/kg)	3,300	3,000	2,800
사료비(원/kg 증체)	270	264	252

위표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사료라면 오히려 사료효율이 가장 낮은 C 사료가 될수 있는데 우리는 이 사료를 품질이 나쁜 사료라고 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이러한 경제성의 순위는 어떤 한가지 요인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게 된다. 옥수수과 어분, 대

두박, 피강류로 대별하여 원료를 생각할 때 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은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피강류만이 공급이 달려가 가격이 급상승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C 사료를 만들기 위하여는 사료단가가 100원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한편 A 사료는 당초 고열량사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강류의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피강류의 변동여건에 관계없이 안정된 원가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경제성의 순위는 영양농도가 높은 즉 효율이 높은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사양가에게 가장 유리하게 된다. 우리는 과거 석유파동시에 옥수수 가격이 90원이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에 피강류의 사정은 비교적 안정되었고 따라서 저에너지 사료가 가장 경제적인 사료이었음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표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1. 축산물 판매가와 의 관계 : 육계의 시장가가 아주 높을 때 사양가들은 자금의 보다 빠른 회수 또는 좋은판매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경제성은 뒤지더라도 A 사료를 택하여 보다 빠른증체를 목표로 할 것이다. 한편 육계의 시장가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생산 원가에도 미달되는 가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격 위주로 가장 값싼 C 사료를 택하게 될 것이다.

사양가의 자금 사정면에서 볼때, 만일 어떤 사양가가 가축 증식과 같은 일로 인하여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면 외상 거래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는 사료의 품질보다는 오히려 외상 거래에 의해 최대의 자금 편의를 볼 수 있는 사료를 자기입장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것

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료의 품질을 평할때 하나의 고정 관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생산재인 만큼 경제성에 입각한 상대적인 여건 하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격통제는 기업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소지가 된다.

기업의 생명이 이윤 추구에 있고, 이윤의 발생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을 통한 부의 창조, 이것이 곧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원리적인 이야기이다. 가격 통제라는 비정상적인 여건하에서 기업은 자기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적응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가운데서 본의 아닌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현행 사료가격 제한 여건하에서 사료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부작용을 예상하여 보기로 한다.

1. 원료의 품질이 좋지 않아도 가격 우위원칙으로 원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원료 시장의 품질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이다. 좋은 원료만이 좋은 사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료의 원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하여 보다 높은 효율의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장 여건하에서도 좋은 사료를 만들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축산물 시장의 안정회복을 둔화시킨다.

3. 사료공장은 그 때 그때의 시장여건하에서 수익이 높은 사료만을 판매하려고 할 것이므로 수익성이 없는 사료의 생산은 중단되고 따라서 양축가는 원래의 사양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가품만 구입하게 되어 사료비의 지출이 의외로 높아진다.

4. 원료가 품귀하면 원료의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에 따라 사료 생산자는 부득이 생산을 조절하게 된다.

5. 사양가가 원하는 사양계획에 맞는 사료를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수 사양관리를 하고자 하는 종축, 특수 품종, 특수 사양환경, 특수한 스트레스의 극복 등 사양가의 조건에 맞는 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6. 계절별 환경 온도에 맞는 사료를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혹서기인 여름철에는 닭의 사료 섭취량이 10~30% 정도 감소하는데 이러한 더위에서 정상적인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영양밀도(아미노산, 비타민, 미량 광물질)를 10~30% 높여야 한다. 따라서 일청 가격만이 인정되는 가격 통제하에서는 가축의 생산성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7. 품질 및 서비스의 경쟁이 둔화되고 연구활동 및 창의력 개발이 억제된다. 결과적으로 가축의 능력개발이 극대화 될 수 없고 사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면에서 일어나는 손실을 사료단가를 표시 하듯 명확히 볼 수 없다고 무시 한다면 그 보다 더큰 과오도 없을 것이다.

사료 공업의 발달이 곧 한국 축산업의 발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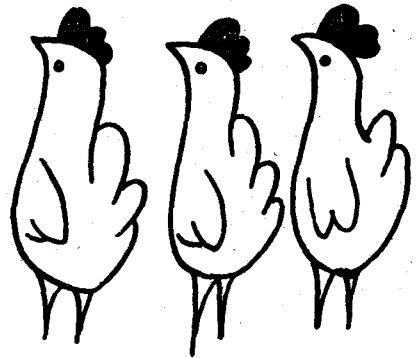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사료업은 금년도 생산 목표가 250만톤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순수한 원료비 투입액은 2,000억원이 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00억원이 된다 이것을 다시 사료가 양축가의 손에 들어가서 가축을 통하여 얻어지는 축산물생산가액으로 환산하면약 4,000억원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이 거대한 사료 공업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사료 공업의 발전은 곧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 상통한다고 하겠는데, 사료 공업이 좀 더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 삼간을 태워버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단순히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사료판매가를 올리지 않으려다가 4,000 억 원에 달하는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성을 크게 다쳐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사료의 가격과품질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1. 사료 가격은 자연적인 시장기능에 맡겨지도록 자유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료 가격의 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료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료도입의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료 생산 공장의 신규 허가등을제한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운 경쟁을위한 투자는 최대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단기적인 원료 품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일정량의 사료원료를 비축할 수 있는 사이로 시설을 항만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료의 품질유지, 군소 사료 공장의 사이로 시설의 절약 등 많은 이점을 줄 것이다.
5. 사료 원료의 과학적인 수급관리, 가격관리, 원료가치 평가를 위하여 전산기 활용 기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성부화장은
양계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협 603

필취

금성부화장

안 병 진

안양시 안양 6동 437-1

☎ (안양) 3757, 7888